

# 세계의 당뇨병 소식



## 이탈리아

### 제 2형 당뇨병 환자에 임포 많다

제 2형 당뇨병 환자들 사이에 발기부전 환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탈리아 콘소르시오 마리오 네그리수드 병원의 안토니오 니콜루치 박사는 미국의 당뇨병 전문지 '당뇨병 치료'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 1,420명을 대상으로 발기기능을 조사한 결과, 약 1/3이 발기부전 환자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니콜루치 박사는 이들 중 34%는 발기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24%는 이따금씩 발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니콜루치 박사는 발기가 되려면 음경에 있는 2개의 해면조직체에 혈액공급이 증가해야 하는데 심장병이나 당뇨병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맥혈류장애 때문에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니콜루치 박사는 발기부전은 당뇨병 환자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좌절과 우울증을 촉진해 혈당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니콜루치 박사는 당뇨병 환자가 혈당만 잘 조절하면 발기부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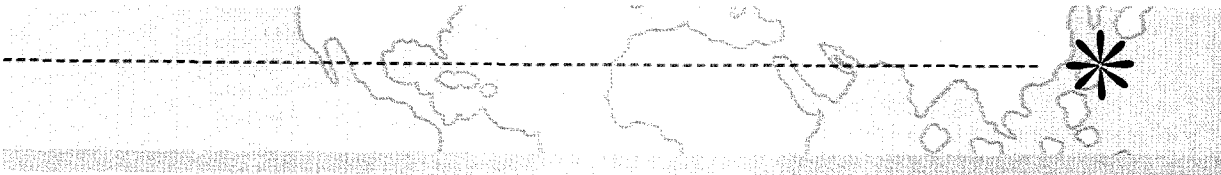
### 서양식 식사, 제 2형 당뇨병과 연관 있어

육류, 고지방 낙농제품 그리고 정제밀 제빵류 등 서양식 식사를 하는 성인 남성들은 40세 이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60%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중위생대학의 프랭크 후 박사팀은 미국내과학회 회보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성인남성이 과일, 야채, 미정제 곡류, 생선 그리고 가금(家禽)류 등을 섭취하면 제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0% 낮아진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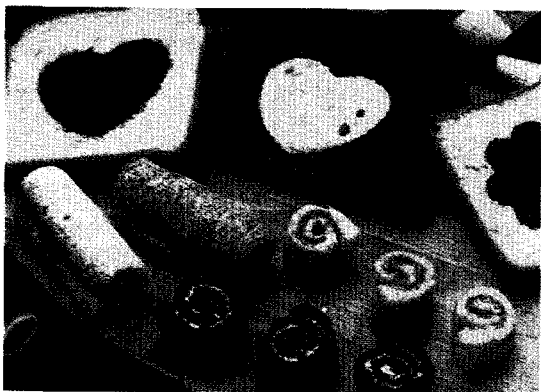
연구진은 40~75세의 남성의료전문 종사자 42,504명을 대상으로 1986~1998년에 걸쳐 식사와 당뇨병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1,300명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또 서양식 식사를 한 비만성인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률이 정상인의 1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후 박사는 특히 건강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롤빵 등을 먹는 저지방 식사는 제 2형 당뇨병에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면서 제 2형 당뇨병의 발병확률과 심장병 등 복합증세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정제 곡류, 과일, 채소 그리고 생선을 섭취하는 방향으로 식사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당뇨병협회의 나다니엘 클라크 박사는 '이번 연구는 섭취식품에 따라 제 2형 당뇨병의 전이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점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이 연구는 당뇨병의 주요원인으로 비만을 상대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1,600만 당뇨병 환자의 90%가량이 걸린 제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4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전문가들은 미국은 향후 50년 동안 당뇨병 환자가 2,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세브란스병원, 인슐린 저항성 평가로  
성인병 예측가능**

인슐린 저항성 평가를 통해 각종 성인병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당뇨병센터 허갑범 교수팀은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1,092명을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그룹(364명)과 중간그룹(364명), 저항성이 없는 그룹(364명)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성인병에 걸릴 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그룹에 비해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당뇨병은 10배, 고혈압은 1.8배, 고지혈증은 2.8배, 고콜레스테롤증은 2.5배, 지방간은 9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체에서 당분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진 정도

를 말하며 인슐린의 혈중농도와 공복혈당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한다.

허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면 각종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 만큼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인슐린 저항성 평가를 건강검진의 필수항목으로 포함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휴먼 인슐린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

(주)종근당이 휴먼 인슐린 제제의 다기관 임상시험을 위한 자원자를 모집중이다.

최근 종근당이 자체개발한 본 휴먼 인슐린은 속효성으로,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해 인체 체장성 인슐린과 물리·화학·생화학적으로 동일하게 만든 제제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는 기존 인슐린 치료를 1개월 이상 받고 있는 18~70세 당뇨병 환자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30일간 1일 4회 인슐린을 투여받게 된다. 또 각종검사가 병행되고 기간내 투여되는 모든 약물과 필요한 검사비용 등이 무상 지급되며 자가혈당측정기가 지급된다. 아울러 당뇨관리 책자와 비디오 자료 등도 제공되며 각 병원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집중관찰과 치료 및 상담이 가능해 개별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경희대병원, 강남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5개 대학병원에서 현재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주)종근당 임상의학팀:02) 2194-0462~3